

광양시, 베트남 다낭시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항만물류·무역·투자·관광·보건 등 실질 협력 추진 우호도시 협약 체결...미디어아트 등 교류 현장 달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베트남 중부권 대표 도시인 다낭직할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관광·문화예술 등 분야별 교류 확대에 나선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실무 공무원 2명과 시민 9명(K-POP 댄스 공연팀 8명, 통역 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베트남 다낭직할시에 파견해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K-POP 댄스 공연, 양자 회담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2017년 베트남 팜남성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체계 개편으로 팜남성이 다낭직할시에 편입되면서 기존 협력 관계를 계승하고 교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양 도시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양 도시 간 실무협의를 거쳐 박성현 광양시장이 먼저 서명한 협약서를 다낭시에 전달하고, 응우옌 마인 흥 다낭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하면서 최종 체결됐다.

협약에는 경제·투자·무역 분야 교류 확대, 경제구역 관리·개발 경험 공유, 항만 물류·관광·보건 분야 협력, 민간·기업 교류 강화 등이 담겼다.

양 도시는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체결에 이어 열린 '광양시-다낭시 양자 회담'에서는 양 도시의 주요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경제·산업·관광·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광양시는 국가산업단지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산업·물류 경쟁력을 소개하고, 다낭시와의 경제·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 광양시 K-POP 댄스 공연팀은 '베트남-한국 페스티벌' 주요 행사에서 이틀간 공연을 펼쳤다. 공연 이후 진행된 K-POP 랜덤 댄스 플레이에는 현지 시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행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시는 현재 세계 10개 국가·지역의 18개 도시와 자매·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난해 캐나다 캘리타온섬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다낭시와의 우호도시 협약을 통해 양 도시의 산업·물류 기반을 활용한 경제협력은 물론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베트남 중부권 대표 도시인 다낭직할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관광·문화예술 등 분야별 교류 확대에 나선다. 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자치시 광양시청



2026 순천미식주간 기간 중 순천 로컬 미식 장인들이 남문터광장 무대에서 음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청

순천형 먹거리 콘텐츠 육성 플랫폼 구축

시, 푸드페스타·미식투어·음식문화 3개 분야 구체화 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지역 먹거리를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확장하기 위한 순천형 먹거리 콘텐츠 육성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최한 2026 순천미식주간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식관광 콘텐츠 발굴에 나선다.

시는 2026 순천미식주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순천형 먹거리 콘텐츠

육성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사업은 푸드페스타, 미식투어, 음식문화 등 3개 분야로 구체화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식관광 콘텐츠 후보군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푸드페스타 분야에서는 푸드엔터테인먼트 등 기존 축제에 순천 음식의 역사와 전성, 체험, 시식 등을 접목해 축제 콘텐츠를 내실화한다. 기존 행사와의 중복을 줄이는 대신 미식 요소를 강화해 축제

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미식투어 분야에서는 음식과 공간, 역사, 야외활동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한다. 원도심·국립거리 역사 미식코스과 걷기·리빙에 지역음식을 결합한 프로그램 등 순천의 기존 관광자원을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할 예정이다.

음식문화 분야는 전문가 협업을 통해 순천 음식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미식·관광 전문가 토코스와 발효음식 특강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향후 민간 참여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8년부터는 2027년에 발굴한 콘텐츠 후보군을 기반으로 민간참여형 계절별·축제 연계 미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북철 피크닉형 미식투어와 여름철 야간 미식투어 등 계절별 관광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업체와 관광업체가 함께 운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손호모 시장은 "2026 순천미식주간은 순천의 음식자원이 관광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내년부터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순천형 미식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채류시간 확대와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서 기자 2556pk@gwangnam.co.kr

여수, '2026 스타기업' 3개사 신규 선정

지역경제 선도...지역 대표기업 성장 기반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최근 '2026년 여수시 스타기업'으로 새롭게 선정된 3개 기업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스타기업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정개발, ㈜아라움, ㈜대아씨푸드 3개사로,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간담회에서는 스타기업 대표들에게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한 뒤 기업의 주요 사업과 애로사항, 향후 성장계획 등을 청취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2012년부터 여수시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최대 3년간 기술개발(R

&D), 디자인 및 제품 고급화, 지식재산권 확보, 국내외 마케팅 등 기업의 성장 단계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서영학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경영노력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 대표님들을 직접 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스타기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며 지역 경제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여수시는 최근 '2026년 여수시 스타기업'으로 새롭게 선정된 3개 기업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스타기업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자치시 여수시청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버지 학교 운영

집단상담·역할극 소통 물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최근 부모교육 프로그램 '행복한 아버지학교 11기'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정서적 양육 역할을 높여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임상 경험과 심리학 이론을 접목한 참여형 집단상담으로 진행됐다.

전문 강사진(이윤희 심리치료연구소 C&C 소장, 이호준 전주대 교수, 정보인 부

심리상담센터 소장)이 참여해 자녀의 발달·심리 이해, 양육 태도 성찰, 감정코칭 대화법, 역할극 및 놀이를 통한 관계 개선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양육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녀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는 위기청소년 상담과 지원은 물론 부모교육, 예방교육,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센터 누리집이나 전화(061-363-9586)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장흥군보건소, '건강일터 8호점' 운영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보건소는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와 함께하는 건강일터 8호점'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장흥군보건소와 노인전문요양원이 상호 협력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 측정, 건강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찜질이 체조,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한다.

특히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건강위험요인을 함께 관리하고, 건강한 직장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들이 건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직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고흥, 사회연대경제 이해·전략 모색

내달 15일까지 총 5회 교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경제적기업 설립·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심화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며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교육은 9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고흥상생일자리센터 2층 교육실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회연

대경제에 관심이 있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설립 및 전환 등을 준비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1회차 사회연대경제 이해, 2회차 협동조합, 3회차 사회적기업, 4회차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5회차 사회적경제 사업과 전략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14일까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일자리 플랫폼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고흥상생일자리센터(고흥군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